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Column

인천발전연구원에 가는 기대



Interview

인천발전연구원 김민배 신임원장과의 만남



IDI 소식



우리연구원_사무식

우리 연구원은 지난 1월 3일 오전 10시반, 대강당에서 사무식을 갖고...

Zoom 人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인도네시아 녹색성장 전략개발 사업 논의 - 전문가 초청 세미나개최(...)

Zoom 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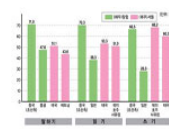
편안한 휴식의 섬, 영흥도
수도권에서 차로 갈 수 있는 서해의 가장 끝 섬, 바다를 세 번 가로질...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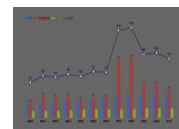
키타큐슈를 보면 인천이 보인다
이글은 2010년 키타큐슈시립대학과 인천발전연구원간 올해로 5회째 행사...

IDI 연구



2009년 인천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2009년에 보건복지부, 여성부, 법무부가 합동으로 전국에...

인천지표



지표를 통해 본 연구원(IDI)
연구원은 1996년 4월에 개원하여 양·질적인 측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발전연구원에 거는 기대

인천발전연구원에 거는 기대

이인석 인천대 인천학 연구원 초빙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광역시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출범한지 올해로 열다섯 돌을 맞는다. 금년은 21세기의 또 다른 10년이 시작되는 해로서, 인천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데 이어 본격적인 이륙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조성, 구도심 재생 등 미완의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고, '경제수도'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전들을 헤쳐나가야 한다. 인발연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지고,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년 들어와 인발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재정 지원자이자 최대 고객인 인천시가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연구원의 역할이 비판의 표적이 되면서 이미 금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조만간 조직 개편이 예고되는 등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이다. 이전에도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세한 역풍이 불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환경이 변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싱크탱크란 정책 이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이를 정책 결정자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권고하는 두뇌집단이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연구 사업은 정책 결정자에게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인발연도 스스로 밝히듯이 '시정전반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연구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응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편중된 주제에다 학술적 연구에 더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책 연구기관이 새로운 상아탑으로 변질되고 있는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 동안 자기 혁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때문인지 결국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개혁을 주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출범 이후 끊임없이 인발연을 무겁게 누르는 압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의 실용성 증대이다. 이는 연구원의 두 생명선이며,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인발연의 지속적 발전의 전제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연구 성과가 수요를 충족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먼저 연구의 실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인발연이 지금까지 쌓은 업적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도시재생'은 전국 최초의 시도로서 한국 도시정책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 성과를 거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가 바로 정책 수립에 연결된 경우는 흔치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행정기관과 연구원의 논리 체계가 서로 다르고, 양자 간에 시간차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과정은 복잡하고, 단선적이며 논리적인 경우가 드물며, 때로는 여론 수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연구 자료가 바로 실제 정책으로 옮겨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것이 순수 학술 연구의 성격이 강한 것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연구원의 조언이나 대안을 생각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선거구민이나 여론 등 정책수립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더 중시한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이나 습관 혹은 로비스트의 힘이 훨씬 강한 편이다. 훌륭한 연구자보다 스토리 텔러, 네트워크 등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다. 인발연도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 대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는 두뇌집단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딜레마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남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은 한 가지, 정책 입안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선 자료는 쓸모가 있어야 한다. 자료의 유용성이야 말로 연구원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인발연의 경우, 실현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학술적이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연구물도 적지 않다. 연구는 우선 객관성을 중시해야 하겠지만, 여기에 검증된 현상이 밀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객관성과 현실성이 결합되어야 연구서의 유용성을 높이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기가 용이하다. 더욱이 지금은 학술 논문도 쉽게 읽히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쓰는 시대다. 전문 용어라 해도 가능한 한 쉬운 말로 표현해서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사안마다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제 자체가 실용적이고 실천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원에 대한 신뢰는 주제 선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의 유용성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또 있다. 당면한 정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이 그것이다. 아이디어란 통념이 아니라, 남보다 한 발 앞선 전략적 사고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생각지 못한 기발한 발상을 통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병서(兵書)가 아니라 무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난제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 중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공무원의 경직된 사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에게 필요한 것은 돌파구를 찾아 줄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아이디어 개발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연구원의 생존 전략이라 생각하여 이에 대한 역량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해 연말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지난 해 불소 수돗물 논쟁이 한창일 때 인발연에서는 침묵을 지켰다며 연구원의 자성을 촉구한 적이 있다. '연구원의 침묵'이 문제된 것인데, 이는 싱크탱크로서 해야 할 일을 새롭게 일깨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나 정책 제안서만으로 자신의 전문가적 의견이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짧은 형식의 오피니언 글을 지역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발표할 수도 있다.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듯 시정과 시민이 부딪치는 현실에서 갈등 해소와 정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연구자들이 공정한 중재자로서 기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 권장할만한 일이다.

이처럼 정책 환경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연구원이 해야 할 일도 새롭게 달라진다. 그렇다고 중장기적 과제는 뒤로 하고 현안 과제에만 매달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차원의 문제까지도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다. 안보문제가 지역현안이 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적, 전지구적 문제를 지역의 눈으로 통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당장은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중장기 연구가 지닌 사회적 잠재 가치나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경제, 환경, 사회 3자의 균형 발전이라는 도시 경영의 궁극적 목적이 실현되려면 중장기 연구는 오히려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인발연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주문한 듯싶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적응과 혁신이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달리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외부 환경이 달라지면 내부의 생존 조건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경쟁자나 외부의 압력이 없다보니 안일에 빠졌던 것은 아닌지, 또한 스스로 문을 닫아걸고 변화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구성원들 스스로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인발연이 겪고 있는 시련은 그동안 느려터진 아인이나 아즈의 대가로 바야 트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인발연은 제2의 창업 정신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겠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지, 이른바 자신의 정체성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여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비전은 태양빛을 한데 모으는 볼록 렌즈와 같은 것이다. 오늘날 인발연에 붙어 닦친 역풍도 파지고 보면 조직이 초점을 잃은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선봉장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어서 혁신에 따른 고통이 매우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풍요로운 지역 사회 건설의 프런티어라는 긍지를 갖고, 인천의 미래를 밝히는 꿈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광역시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출범한지 올해로 열다섯 돌을 맞는다. 마침 금년은 21세기의 또 다른 10년이 시작되는 해로서, 인천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데 이어 본격적인 이륙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조성, 구도심 재생 등 미완의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고, ‘경제수도’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전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인발연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지고,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김민배 신임원장에게 듣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발전연구원 김민배 신임원장에게 듣다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카' 54호에서는 새로 취임한 김민배 원장을 만나 개원 15주년을 맞이한 우리 연구원을 진단해 보고, 앞으로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과 원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역점 사업과 실현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우선 인천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편으로는 학교에 계시다가 원장이라는 중임을 맡으셔서 부담도 되시고 낯설기도 하실텐데요, 원장님께서 진단하는 우리 연구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외부에서는 연구원이 인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비판적으로 말하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이것은 연구원과 호흡하거나 다독이는 이가 없었고 개별 연구자들이 실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 전반의 정책을 연구하기보다 특정 부서의 요구와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수준의 연구만 머물렀었다고 판단합니다. 또 일부는 본인의 관심사를 채우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연구원 가운데 많은 수가 도시계획이나 교통 전공이고 교육·일자리·의료·문화 등의 영역에 대한 연구진은 부족합니다. 이런 불균형 상황에서는 인천시의 정책을 균형 잡히게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Q. 우리 연구원은 올해로 개원 15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천시와 시민사회 등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연구원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 대학교수들과 외연을 확대해서 연구원 내부에 온정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가천길대학교, 재능대학교 등에 약 1천 500명 이상의 교수들과 전문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대학 교수들과 교류를 활발히 해서 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연구원 내부에 온정주의가 팽배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조건 인천시정에 따라 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확신을 갖고 연구에 임해야 합니다. 시가 요구하는 연구를 수행하되 동원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동력은 바로 원구원에서 시작된다는

지역시운 기지근단 저무가르신이 '체이' '야시' '승'이 영그일이 프트르 저차된 메 저저천 시저이

기업들을 지원하기, 인공기후기 대책, 농업, 한기 인가권 등 조속 정책 제언을 내놓고 싱크탱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왜 냈는지 모르겠다.’ ‘한쪽 입장에서만 분석했다.’ 등 이른바 ‘면피용 보고서’로 인해 인천발전연구원이 비난받는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고 어디에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도 모르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면 안 됩니다. 인천의 도심재생사업과 제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춰 현실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현안을 연구, 조사, 분석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Q.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도심재생사업과 제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이면서 체계적인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4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인천 남동공단에 있고, 이 중 300~400곳을 국가정보원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 유출이라도 벌어지면 국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업체들이죠. 인천이 경제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조업과 부품산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 도심권을 개발할 때는 3대가 한곳에 모여 살 수 있는 타운하우스 개념의 공간이 더 많아지도록 정책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유아 보육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우리 전통인 대가족 제도의 장점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예에 불과하고 앞으로 인천시 현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통해서 더 많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Q. 원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연구원 운영 개선 TF’를 꾸렸습니다. 이 TF에는 인천시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대학 등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이 TF에서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을 구성하는 조직원들과 함께 인사나 평가 규정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에 외부 전문가나 시민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기본과제를 선정할 때 담당 공무원도 만나고 인하대, 인천대, 가천의과대 교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도 참여시켜 자문하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를 수행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Q. 우리 연구원에 재직하시는 동안 연구원장으로서 꼭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지요?

우리 연구원의 수준을 국책연구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00명 정도의 연구진이 필요하지만, 우리 연구원의 법정 정원이나 인천시의 재정 상황 등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당장은 지역의 시민사회계,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현안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 풀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관계가 중요합니다. 현재 인천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의 학자를 비롯해 인천 출신과 인천에 관심 있는 교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생각입니다. 인천의 국제화를 위해 우수한 인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이 시민과 함께하고 사랑받는 인천의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장짜리 보고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알기 쉽게 지도도 넣고 시뮬레이션도 만들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쉽게 소개하고 전문가를 위해 만든 문건이 아닌 시민을 위한 보고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Q. 우리 연구원 웹진 “아프리에”를 위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구성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연구원을 만듭시다. 우리의 마음과 상식이 인천과 국가를 변혁시키는 원동력을 잊지 마시고, 인천발전연구원이 대한민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시정연구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대담 : 석 중 수(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 기록 : 장 순 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제54호에서는 새로 취임한 김민배 원장을 만나 개원 15주년을 맞이한 우리 연구원을 진단해 보고, 앞으로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과 원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역점사업 및 실현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우리연구원_시무식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 우리 연구원_2011년도 시무식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연구자로 성장, 동아시아 대표적인 시정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 삼자'



우리 연구원은 지난 1월 3일 오전 10시반,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2011년 출발을 알렸다. 김민배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연구자들이 각 분야의 프로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음 터놓고 서로 존중하며 즐겁게 일하는 연구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시정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역설했다. 또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패 수여와 원장과 직원 상호간의 신년인사가 이루어졌다.

■ 제58차 정기 이사의 열리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 제58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12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려 연구원 조직개편(안)과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1월 3일 오전 10시반,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2011년 출발을 알렸다. 김민배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연구자들이 각 분야의 프로이자 대한민국의 스타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음 터놓고 서로 존중하며 즐겁게 일하는 연구원, 우리 연구원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시정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역설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인도네시아 녹색성장 전략개발 사업 논의 -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1.26):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380-7777

◆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교통' 전문가 세미나 개최(1.27):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 2011 녹색성장 종합연구 전략지도 작성관련 제3차 회의 개최(1.27):경제·인문사회연구회 02-571-0002

◆ 인도네시아 녹색성장 전략개발 사업 논의 -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1.26):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380-7777 ◆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교통' 전문가 세미나 개최 (1.27):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 2011 녹색성장 종합연구 전략지도 작성관련 제3차 회의 개최(1.27):경제·인문사회연구회 02-571-0002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편안한 휴식의 섬, 영흥도



영흥대교

수도권에서 차로 갈 수 있는 서해의 가장 끝 섬, 바다를 세 번 가로질러야 갈 수 있는 서쪽 깊숙이 위치한 섬 영흥도, 이런 영흥도와와의 인연은 작년 웅진군에서 발주한 "웅진군 관광지 지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사업대상지로 십리포 해수욕장과 장경리 해수욕장이 포함되었다.)

서울에서 네비게이션을 찍고 처음 출발한 영흥도는 시화방조제를 건너 지방도 301호선을 타고 대부도, 선재도를 거쳐 총 길이 1.25km의 영흥대교를 건너 만나게 된다. 웅진군 영흥도라는 처음의 인지도가 없었다면 시흥시 또는 안산시의 섬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영흥도는 백령도, 연평도 등과는 달리 인천의 섬 중에서 나에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었다.

면적 23.46㎢, 해안선 길이 42.2km, 인천에서 남서쪽 29.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웅진군에서 백령도 다음으로 큰 이 섬은 영흥도와 선재도, 측도 등 유인도서 4개와 외항도, 중도, 자암도 등 무인도서 18개를 포함하여 연근해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영흥도 첩담

이면에 지역 발전이라는 혜택을 가져주었다고 한다. 발전소를 통해 영흥대교가 건설되었고, 지역주민 인구가 두 배나 늘어났으며, 지속적인 지원금으로 지역민의 복지 혜택 또한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석양에 비친 첩담이 그리 실개만 보이질 않았다. 하여튼 전신주에 느낀 처음과 마지막 이미지를 뒤로하고 이제부터 실질적인 영흥도 탐험을 시작해보자.

영흥도의 대표 관광자원은 수도권에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해수욕장이다. 영흥도의 해수욕장은 수도권 내 다른 해수욕장과는 달리 해안 경관이 수려하고 노송지대가 자리하고 있어 시원한 그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백사장도 넓어 펼쳐져 있어 일출 일몰이 경치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특히 십리포 해수욕장의 소사나무숲(선조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살던 중 해풍이 심하여 방풍림으로 심어 바람막이를 했던 나무숲)은 국내 유일의 소사나무 군락지로서 여름철에는 더위를 식혀주고, 겨울철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의 숲"으로 꼭 한번 방문을 권하고 싶다. 해수욕장 바다의 정취를 느낀 후 국사봉으로

영흥도를 처음 만나면서 느꼈던 섬의 이미지는 바닷가에 펼쳐진 대형 첩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었다. 아름답고, 신비로워야 할 섬이 한전 영흥화력발전소와 연결된 어마어마한 첩담으로 인해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나중에 지역주민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알았지만, 영흥화력발전소는 섬의 자연적 가치 훼손이라는



장경리 갯벌



이어서는 김포를 넘어 가깝게 인접한 곳도 '죽나은 들기움'을 준다. 경사가 완만하여 연인과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며 걷기에 좋다. 이곳에 오르면 송도 신도시와 시화호, 인천항을 일출향하는 외항선, 낚싯배 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영흥도의 또 다른 즐길거리 그것은 바로 낚시이다. 수도권내 내로라하는 낚시꾼들이 바다낚시를 위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영흥도 여기저기서 낚시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여행객들이라면 꼭 빼놓지 말고 들려야 할 곳이 영흥 화력 발전소 에너지파크이다. 살아 있는 전기 및 에너지 체험장으로 다양한 체험시설과 3D 입체 영상관 등이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상해야 할 것이 진두선착장 영흥수산물직판장에서 맛있는 회를 먹고,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인천시 야경이다. 영흥도 관광의 대미를 장식하는 하이라이트로서 인천항의 입출선박과 송도신도시의 불빛들이 장관을 이룬다. 마을 이장님이 연인들에게 적극 추천하시는 마지막 여행 코스이기도 하다.

영흥도... 가깝지만 먼, 그래서 복잡함보다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섬. 올 여름 이곳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싶다.

수도권에서 차로 갈 수 있는 서해의 가장 끝 섬, 바다를 세 번 가로질러야 갈 수 있는 서쪽 깊숙이 위치한 섬 영흥도, 이런 영흥도와의 인연은 작년 웅진군에서 발주한 "웅진군 관광지 지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사업대상지로 십리포 해수욕장과 장경리 해수욕장이 포함되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키타큐슈를 보면 인천이 보인다

도시교통연구실 한종학 연구위원

키타큐슈를 보면 인천이 보인다

이 글은 2010년 키타큐슈시립대학과 인천발전연구원간 올해로 5회째 행사를 한 공동연구발표회를 다녀오면서, 키타큐슈와 인천을 생각하며 글을 써보았다. 키타큐슈의 여러곳을 보았지만, 코쿠라중심지구, 키타큐슈시청주변, 모지코레트로 지구를 보면서 그때의 느낌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일부내용은 이미 알려진 자료에 기반한 사실을 서술하였고, 일부는 함께 다녀온 분들의 의견을 답아서 사진과 함께 서술하였다.

■ 도시 개요

키타큐슈시는 큐슈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칸몬 해협을 사이에 두고 혼슈와 인접해 있는 인구 100만의 도시이다. 우리나라와 가깝고, 일본 산업거점으로서 발전해왔다. 1963년 2월 모지·코쿠라·와카마츠·야하타·토바타 등 5개 도시가 합병하여 탄생했다. 역사상 키타큐슈지역이 최초로 각광을 받은 것은 1600년경으로, 코쿠라성이 축조되어 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서 번영하게 됨으로써 큐슈의 행정, 상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탄생한 메이지정부는 옛부터 해륙교통의 요충지로서 발전해 온 키타큐슈지역의 지리적 우위성을 활용해 상업뿐만 아니라 철도·항만시설 등이 일찍부터 정비된 키타큐슈시는 일본의 우수한 물류거점으로서 발전해왔다.



그림 1. 키타큐슈의 위치

산업분야에서는 1901년, 동양 제1을 자랑하는 국영 야하타제철소의 창업을 계기로 철강, 화학, 금속, 요업 등 소재형산업이 집적됨에 따라 키타큐슈시는 일본의 생산력을 지지하는 산업거점으로서 일본의 4대 공업지대의 일각을 차지해 왔다.

최근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라 산업용 로봇을 비롯하여 IC관련 제품,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창출되는 한편 산학행정의 협력에 의한 공동연구, 기업중료그룹에 의한 신제품 개발 등 지역산업의 고도화·다양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키타큐슈시는 21세기에 있어서의 비약을 위해 아시아의 교통·물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육·해·공 교통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코쿠라 중심지구(Kokura Central District)

코쿠라에는 옛 성시로서의 모습을 상징하는 '코쿠라성'과 코쿠라 정원이 있으며, JR과 도시내 모노레일이 만나는 시내 교통의 중심지이다. 언뜻 인천의 부평역이 생각난다. 경인전철이 동서로 광역철도기능을 하고 인천지하철이 남북으로 부평역에서 환승되고 있는 것이 똑같았고, 지하상가, 부평문화거리, 롯데백화점 등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내부는 너무나 달랐다.

키타큐슈의 도심지역이며, 특히 코쿠라역은 큐슈지역에서 가장 현대적인 역건물로 알려져 있다. 코쿠라 역사내부에는 모노레일이 정차하며, 백화점과 호텔까지 연결되어 있다. 코쿠라 역주변에는 고층건물과 백화점과 전형적인 일본식 쇼퍼아케이드가 있다. 근처에는 '코쿠라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패권을 정리하는 형국에서 발생하게 되었던 전쟁이후 논공행상을 통해 이 지역을 봉토로 받은 호소가와 가문이 축성하였다고 한다. 성의 정면에는 코쿠라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리버워크 백화점이 연이어 위치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이채롭게 보인다.



■ 기타큐슈 시청 전망대, 무라사키 강, 가츠야마 공원

심플하면서, 위엄이 있는, 현대식 건물의 기타큐슈 시청건물이 인상적이다. 제일 꼭대기 층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전경을 나타낸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어 지난 수년동안 기타큐슈시의 정책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청사 건물 주변에는 코쿠라성이 지난 수백년전 코쿠라의 전통적인 모습과 리버워크백화점과 같은 현대적 코쿠라의 모습이 아름답고 조용한 가츠야마 공원내에서 공존해 있었다.

도시민들을 위해 그동안 오염으로 인해



그림 8. 기타큐슈 시청사 그림 9. 시청전망대에 설치된 조형물

이용이 저조했던 무라사키강 주변을 시민들에게 친근한 수변공간으로 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무라사키강 주변을 활기찬 도시공간으로 새롭게 창출시키기 위하여 문화·정보·오락·상업의 복합공간인 리버워크 기타큐슈를 2003년 4월에 준공하였다.

도심부의 무라사키강을 횡단하는 10개의 교량을 정비·건설하였는데, 단순히 도로의 연장이 아니라 이를 도시의 심볼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바다, 불, 나무, 돌, 물새, 달, 태양, 철, 바람, 소리의 10가지 요소를 테마로 한 다리를 정비·건설하여 관광 명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10. 무라사키강 수질측정소 그림 11. 가츠야마 공원

■ 모지코 레트로

모지코 레트로의 구도심지 건축물의 보존, 구 모지항의 친수공간화, 일본철도의 역사, 인입선 철도를 활용한 관광열차 운행 등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구도심을 연상케 한다. 모지코는 지역명이고 레트로는 retrospective의 줄임말로 회고하다는 뜻으로 '복고풍' 정도의 뜻이다. 모지코의 역사는 1890년~1940년경 일본을 대표하는 무역항으로써 철도의 거점이 되었고 큐슈의 땅과 바다의 거점이기도 하였다. 인천, 역시 이 시기에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표 무역항으로 경인선철도가 운행하였다. 1942~1975년에 걸쳐 칸몬 국도 터널이나 칸몬교가 개통하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모지코를 살리기 위하여 모지코 레트로 사업을 시작한다.

역사적 건물을 없애지 않고 보존·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며, 현존하는 건물은 정비하고, 역사적 건조물을 복제하는 등의 역사보존지구사업으로 관광객이 년 25만명에서 107만명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하였다. 관광객들이 모지코 레트로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모지코 레트로 전망대를 정비하고 야경에도 신경을 썼으며 레스토랑이나 선물점 등의 관광상품과 모지코 호텔도 정비하였다. 시오카네호라는 해안가를 달리는 열차를 운행하여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었다. 모지코 레트로 보면서 인천항을 생각해봤다. 친수공간으로 하기 위한 주변 개발계획, 논란이 많은 은하레일(차라리 인천항 인입철도를 활용했더라면 어땠을까?), 인천역사건물을 모지코역이나 역사박물관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과거시대 건물을 모지코 레트로와 같이 보존하고, 바다와 어우러지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적 공간을 상상해 본다.





그림 12. 모지코역



그림 13. 철도역사박물관



그림 14. 간몬해협



그림 15. 모지코관광열차



그림 16. 구 오사카 상선



그림 17. 모지항레트로 풍경

이 글은 2010년 키타큐슈시립대학과 인천발전연구원 간 올해로 5회째 행사를 한 공동연구발효회를 다녀오면서, 키타큐슈와 인천을 생각하며 글을 써보았다. 키타큐슈의 여러 곳을 보았지만, 코쿠라중심지구, 키타큐슈시청주변, 모지코레트로 지구를 보면서 그때의 느낌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일부내용은 이미 알려진 자료에 기반한 사실을 서술하였고, 일부는 함께 다녀온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사진과 함께 서술하였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2009년 인천시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고서

■ 보고서 개요, 조사방법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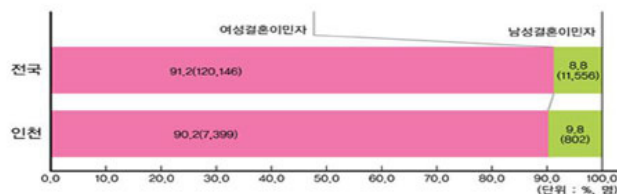
- 이 보고서는 2009년에 보건복지부, 여성부, 법무부가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다문화가족을 조사한 자료 중 인천시 자료만을 별도로 분석하여 인천시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드러낸 것이다.
- 이 조사는 샘플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사료가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외국인주민현황 조사에 기초하여 전국의 154,333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0개 국어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면접원이 방문하여 직접 거주자가 확인된 가구는 131,702였으며, 16개 시도에서 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73,699가구(남성 결혼이민자 4,275가구, 여성결혼이민자 69,394)가 조사에 응하여, 조사완료율은 전국적으로 55.9%였다.
- 인천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구는 2009년 총 9,809였으나, 조사원이 거주자를 확인한 결과, 8,219가구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중 남성결혼이민자는 820명, 여성결혼이민자는 7,399명이었다. 인천거주 가구로 확인된 8,219가구 중 조사 완료가구는 5,189명으로 조사완료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63.2%였다.
- 이렇게 조사된 가구에 국적, 연령별 특성을 기초로 응답 가중치를 분석하여 실제 거주 가구 수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모집단은 모두 8,219가구이다.
- 이번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일반사항, 취업,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총 7개 분야 119개 항목이 파악되었다. 전수조사가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쉽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보고서는 다문화가족의 전반적인 실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천시 다문화가족 실태 요약

1) 결혼이민자의 규모

2009년 현재, 거주자가 확인된 인천시 결혼이민자는 8,202명이다. 이 중 여성 결혼이민자는 7,399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90.2%, 남성 결혼이민자는 802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9.8%이다. 인천시는 전국에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 비율이 다소 낮고 따라서 남성 결혼이민자 비율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결혼이민자 성비(전국, 인천)



2)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 전국적으로 볼 때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24.4%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수도권 거주비율을 상당히 높는데, 경기, 서울(21.2%), 인천(6.2%)에만 전체 결혼이민자의 51.8%가 거주하고 있다.
- 인천시에서는 부평구에 가장 많은 19.1%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남구에 17.8%, 서구에 17.8%가 거주하고 있다.

〈그림 2〉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인천)





3)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인천시 결혼이민자는 중국 조선족(37.6%, 3,082명)이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한족 등 기타 민족(34.0%, 2,790명), 베트남(11.0%, 905명) 등의 순이다. 전국으로는 결혼이민자는 중국 조선족(30.4%, 40,000명)이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한족 등 기타민족(27.3%, 35,914명), 베트남(19.5%, 25,688명) 등의 순이다. 비율적으로 인천에 중국출신 결혼이민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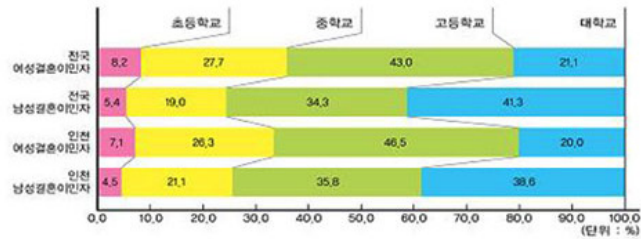
<그림 3> 결혼이민자 출신국(전국, 인천)



4) 결혼이민자 교육수준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남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보다 높다. 인천시 여성의 경우 중학교 이하가 33.4%이고 남성의 경우 중학교 이하의 25.6%이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20.0%인데 반해 남성은 38.6%이다.

<그림 4> 결혼이민자 출신국(전국, 인천)



5)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말하기, 읽기, 쓰기

결혼이민자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한국어 실력을 말하기, 읽기, 쓰기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인천시 결혼이민자들 중 한국어 말하기를 '매우 잘함' 혹은 '잘함'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결혼이민자는 중국(조선족)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71.0%로 가장 많았고, 몽골이 다음으로 47.6%였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 말하기에 '서툼' 혹은 '매우 서툼'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결혼이민자 태국 51.1% 였고, 다음으로 베트남 43.6%로 가장 높았음. 한국어 읽기의 경우에도 중국(조선족) 출신이 '매우 잘함' 혹은 '잘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툼' 혹은 '매우 서툼'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결혼이민자 태국 출신으로 53.3%가 스스로 읽기에 서툼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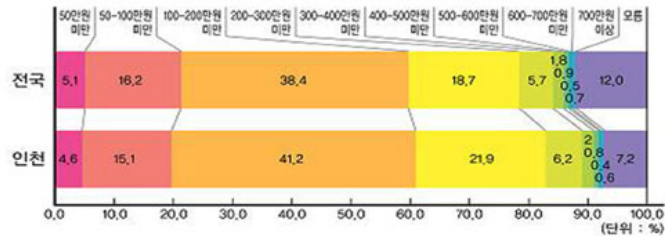
<그림 5>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말하기, 읽기, 쓰기(전국, 인천)



6) 결혼이민자의 경제상태

인천시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41.2%이며, 결혼이민자 중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19.7%이다. 전국의 경우도 인천과 비슷하다.

〈그림 6〉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전국, 인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간 사회보험료 미납, 전기수도세 체납, 생활비 위한 금전차용, 병원치료 중단 및 포기 중 1가지 이상 경험한 비율을 알아보았을 때 인천시 다문화가족의 경우 34.4%가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시 다문화가족의 빈곤경험률은 30.0%인 전국에 비해 다소 높았다.

7) 결혼이민자 만족도

인천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만족도조사에서,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인천시 다문화가족은 54.9%로 전국 평균인 56.8%에 비해 낮았고, 이를 다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서 보았을 때, 인천시 여성 결혼이민자는 56.1%가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는 45.3%만이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만족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음.

8) 본인 및 배우자 취업률

다문화가족의 취업상태는, 인천시 결혼이민자 본인 취업률은 45.7%, 한국인 배우자 취업률은 80.8%였으며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국 결혼이민자 본인 취업률은 40.2%, 한국인 배우자 취업률은 83.1%이다. 결혼이민자 본인 취업률은 인천이 다소 높고 한국인 배우자 취업률은 전국 평균이 다소 높다. 인천시 결혼이민자의 경우 '서비스업'(27.6%) 종사비율이 가장 높고 '임시직'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39.7%),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엔 '기능직'(22.1%) 및 '상용직'(40.2%) 비율이 가장 높다.

9)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시설 이용률

인천시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2.0%로 전국 평균인 57.0%에 비해 낮고, 보육시설 중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59.1%). 자녀가 초등학교생 경우엔 '학원비 마련'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고(33.0%), 초등학교생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학교교육비, 급식비 지원'을 꼽았다(28.6%).

10) 다문화가족 복지욕구 -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욕구

인천시 다문화가족의 복지서비스(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임신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수혜율은 전반적으로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고, 특히 도움이 된 복지서비스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교육(5점 만점에 4.0점)'을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엔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5점 만점에 3.5점)'을 꼽았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묻는 질문에서 인천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엔 '자녀 양육 및 학습지원(5점 만점에 3.4점)'을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엔 '한국어 교육(5점 만점에 2.8점)'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9년에 보건복지부, 여성부, 법무부가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다문화가족을 조사한 자료 중 인천시 자료만을 별도로 분석하여 인천시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드러낸 것이다. 이 조사는 샘플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사료가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외국인주민현황 조사에 기초하여 전국의 154,333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0개 국어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지표를 통해 본 연구원 (IDI)

인천발전연구원은 1996년 4월에 개원하여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였다. 2011년은 연구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세기의 출발시점이 되는 2000년 이후 연구원의 발전추이를 되짚어보고, 미래성장을 위한 도약의 지렛대로 삼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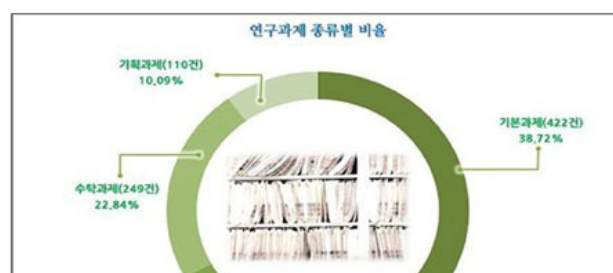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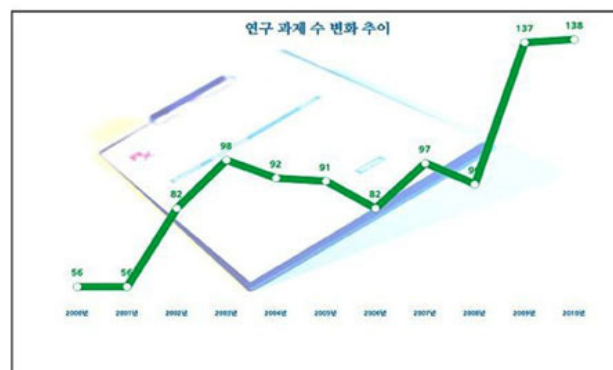
■ 예산 변화 추이

- 인천발전연구원의 예산은 연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력 확충과 사업 다변화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세입을 인천광역시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자체 사업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 연구과제 수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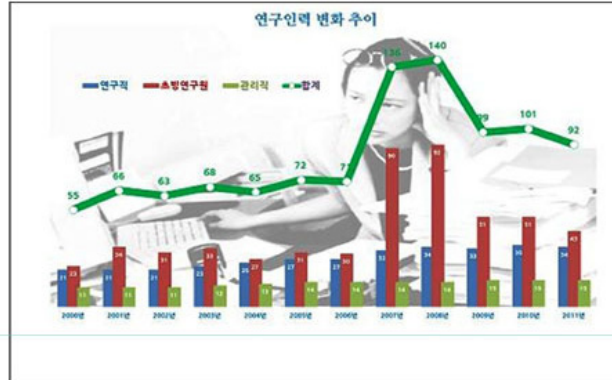
- 연구원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단기 시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과제 유형으로는 기본과제(422건, 39%), 정책과제(309건, 28%), 수탁과제(249건, 23%), 기획과제(110건, 10%)가 있고, 개원 이후 총 1,090건의 과제를 수행했다(단기 시정현안 대응을 위한 수시연구과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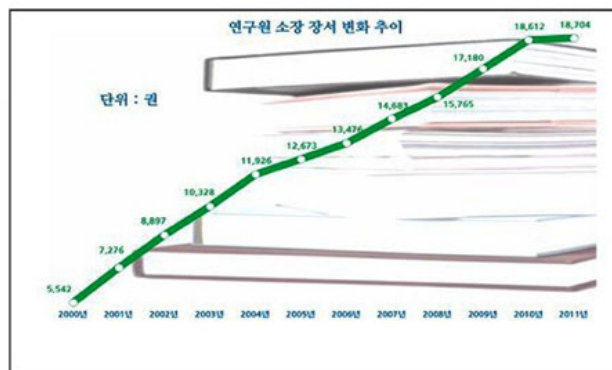
■ 연구원 인력 추이

- 연구원에는 연구직 직원과 연구지원직 직원이 있으며, 연구 사업이 증가하면서 인력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연구원 장서 보유 추이

- 연구원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지식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장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최근 태블릿 PC 보급이 보편화되고 전자책 이용이 늘어나면서 각종 학술저널들이 인쇄물보다는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게 되는 추세여서 장서 보유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 비율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1996년 4월에 개원하여 양·질적인 측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였음. 올해는 연구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새로운 세기의 출발시점이 되는 2000년 이후 연구원의 발전추이를 되짚어봄으로써 미래성장을 위한 도약의 지렛대로 삼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